10월30일 Market Index
코스피 5730.74 (-206.92)
코스닥 724.38 (-28.38)
금리(국고채 3년) 3.715 (-0.051)
환율(원-달러) 1334.30 (-2.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m-커버스토리

AI 전력수요 급증 '공급망 시험대'

정부, K-에너지 점검

용인·평택, 서남·충청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중
11차 전기본 원점 재검토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인프라가 기로에 섰다. 정부가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돌입한 가운데, '대체불가 K-에너지' 확보를 위한 쟁점과 정책적 과제를 긴급 점검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3대 첨단 분야에 민관 합동 1400조원을 투입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용인·평택 중심의 수도권 메모리 거점 외에도 서남권(제2 반도체 생산거점), 충청권(HBM 첨단 패키징), 영남권(전력반도체) 등 전국 각지에 거대한 산업단지 조성이 예고된 상태다.

특히 전남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팹(FAB) 4기와 협력사가 모두 가동되면 대형 원전 6기 분량인 최대 6.3GW(기가와트)의 전력이 소모된다.

정부와 한전은 신장성·신광주 345㎸ 송전망에서 산단까지 신규 공급선로를 놓아 2029년 1단계로 3GW를 우선 확보하고, 향후 6GW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상시 가동되는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의 초대형 상시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력망에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부하가 밀려들고 있다.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당초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원점부터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40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치를 당초 131.8~138.2GW에서 158.4~165GW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불과 몇 달 새 원전 19기에 맞먹는 27GW 가량의 수요가 추가된 셈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투자 계획이 구체화된 36.8GW를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AIDC 등의 전력 수요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계된 '허수 수요'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도 과대·과소 추계를 걸러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반영하려 했으나 막상 진행해보니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막연한 수요를 제12차 전기본에 모두 담기보다 실제 진행 상황과 현실적인 수요를 엄밀히 따져 전력 전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화필리조선소 전경. /한화그룹

한화필리조선소, 美 해군함정 첫 수주

2.7억 弗 규모 중형 상륙함 1척
인도·태평양 원정작전용 상륙함

한화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지 약 1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을 따냈다. 상선 위주였던 필리조선소가 군함도 지을 수 있는 조선소로 인정받으면서 한화의 미국 조선·방산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화디펜스USA는 29일(현지시간) 미 해군 선박건조관리업체(VCM)인 TOTE Services와 중형 상륙함(LSM·Medium Landing Ship) 1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2억 6900만달러(약 3575억원)다. 건조는 한화필리조선소가 맡는다.

LSM은 미 해군이 인도·태평양 등 원거리 분쟁지역 연안에서 분산작전을 펼치기 위해 도입하는 원정작전용 상륙함이다. 해병대 병력과 장비, 보급품을 연안 지역으로 수송·전개하는 임무를 맡는다. 길이 100m, 폭 16m, 경하중량 약 2687톤(t)으로, 항속거리는 약 7400㎞다.

이번 수주는 한화필리조선소가 상선을 넘어 미 해군 함정까지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올해 들어 미국 방산 분야로 보폭을 꾸준히 넓혀 왔다. 지난 3월 한화디펜스USA와 함께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사업에 참여했고 7월에는 미국 '골든돔' 미사일방어체계와 연계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LSM 수주로 함정 설계에 이어 건조까지 미 해군 사업 전반에 발을 들이게 됐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대표는 "2024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한화는 미 해군 등 연방정부 고객을 위한 선박 건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과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해 왔다"며 "일정과 예산에 맞춰 함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TOTE Services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바이낸스 코인 탈취… 北-美 관계 악화일로

비트코인 하루새 5000 弗 급락
핫 월렛서 63억 弗 가상자산 유출
거래소 역대 해킹사고중 최대규모

북한 해커 그룹의 공격으로 미국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대규모 가상자산 탈취가 발생하며 가상자산 가격 전반이 하락했다. 미 연준의 매파정 통화정책과 기술주의 약세까지 겹치며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내렸다. 일각선 이번 해킹의 여파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1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1BTC당 7만7610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해 약 0.04% 상승한 가격으로, 지난 한 달간 BTC당 8만달러 선에서 횡보세를 지속했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30일 새벽 5000달러 이상 급락한 이후 좀처럼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약세다.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지난 일주일간 4.08% 내렸고, 3위 바이낸스(BNB)는 5.59% 내렸다. 같은 기간 시총 4위 리플(XRP)도 4.53% 내렸다. 주요 알트코인이 일주일 전과 비교해 5~10%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탈중앙화거래소 기반 가상자산인 하이퍼리퀴드(HYPE)만 예외적으로 14.84% 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 '해킹우려' 확산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약세인 것은 중앙화거래소(CEX)의 해킹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약 63억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이 거래소 핫월렛(거래소 출금계좌)에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역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 중 최대 규모다. 유출된 자금 중 30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은 동결 및 회수됐지만, 나머지 자금은 기타 가상자산으로 전환되거나 분산 이체를 통해 세탁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이번 해킹 사고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업계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북한을 유력한 배후로 지목했는데, FBI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FBI는 북한 측이 탈취한 가상화폐를 탈중앙화거래소(DEX)를 비롯한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해 자금세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해킹 사고는 거래소 '핫월렛'에서 발생했다. 핫월렛은 사용자가 거래소에 위탁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계좌로, 고객의 입출금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묶어두는 일종의 '출금 대기 금고'에 해당한다. 핫월렛에는 막대한 자금이 보관되는 만큼 엄격한 보안이 적용됐는데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에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만큼 고객 우려도 커졌다.

바이낸스는 이번 유출에서 발생한 피해를 100%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계속되면 거래소의 재정 상황이 악화해 출금 중지 및 거래소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매파적 금리전망·빅테크 약세… 하방 압력 지속

미국 내 금리전망 변화도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한 요인이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韓 누적수출 9300억 弗 '역대급'

산업부, 10월 수출입동향
10월수출 전년비 94% 급증
세계 네번째 연간 1조 弗 눈앞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1~10월 누적 9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대망의 '연수출 1조 달러' 고지 등극을 코앞에 두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 훈풍을 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견인하며 역대급 실적 행진을 잇는다.

산업통상부는 1일 '2026년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3.7% 급증한 1152억 8000만 달러(약 154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211억 달러)에 이은 역대 월간 수출 2위의 기록으로, 2개월 연속 1100억 달러 선을 가볍게 넘겼다. 무역수지 역시 425억 달러 흑자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다.

특히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까지 남은 금액은 700억 달러에 불과해, 오는 11월 중 무난히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경우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이 기록을 세운 국가가 된다.

수출 호조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564억 4000만 달러)가 있었다. 10월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물량이 반도체에서 나왔으며, 전년 동월 대비 259.4% 폭증했다. 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고단가·고물량 유지로 직결된 결과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133.6%)과 대미국 수출(+185.8%)이 강력한 쌍끌이 호조세를 보이며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내일 '내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 협조 요청할 듯 /사진 뉴시스

▲국힘,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탄핵 간 보겠다는 속셈…사법부 길들이기"

▲10월 중 대남방송 예고했던 北 '잠잠'…"실제 방송보다 대남 압박용 공세"

▲직장인 71% "포괄임금 금지해야"…30% "수당 온전히 못 받아"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돌파…66%는 월 60만원도 못 받아

▲중간소득층 40% 벌이 줄었다…8명 중 1명은 소득 '반토막'